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보도자료

문자로 세계와 교류하고
문자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6. 9. 18.(금) 07: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연구교육부	책임자	부장	박준호	032-290-2050
		담당자	학예사	양지선	032-290-205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6년 MoW 국제콜로키움 ‘번역, 이주하는 텍스트’ 개최

- 황석영 작가,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안톤 허 등 국내외 인사 대거 참석
- 한국문학 50년의 궤적과 '재창작으로서의 번역' 다각도 조명
- 10월 8일(목) 박물관 강당 개최...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접수

국립세계문자박물관(관장 김명인, 이하 국문박)은 오는 **10월 8일(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박물관 강당에서 번역을 주제로 한 2026년 MoW 국제콜로키움 ‘번역, 이주하는 텍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콜로키움은 한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가 번역을 거쳐 타 언어와 문화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쓰는 사람’과 ‘옮기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 한국문학과 번역의 본질적 의미를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1부: 황석영 작가·김명인 관장이 되짚는 한국문학 50년

1부에서는 황석영 작가와 김명인 관장(문학평론가)이 대담에 나선다. 두 대담자는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시대의 언어를 기록해 온 한국문학 50년의 흐름을 돌아보고, 오늘날 한국문학이 세계적 주목을 받기까지의 궤적과 역사를 조명한다.

2부: 데보라 스미스·안톤 허가 말하는 ‘번역이라는 재창작’

2부에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와 정보라의 『저주토끼』를 번역한 안톤 허가 참여하여 최미경 교수(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의 진행으로 대담을 나눈다. 두 번역가는 한국어 특유의 호흡·침묵·여백을 영어로 구현하는 방식과 원문의 문체를 살리기 위한 선택 등, 한 편의 작품을 새로운 언

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작으로서의 번역' 경험을 깊이 있게 공유할 예정이다.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은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빚어내는 과정"이라며, "이번 국제콜로키움이 문자와 언어, 그리고 번역이 우리 시대에 갖는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안내 및 참가 신청

이번 콜로키움은 텍스트, 번역, 언어 및 문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외 발표자가 참여하는 2부는 영어-한국어 순차통역 및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www.mow.or.kr)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연구교육부(☎ 032-290-2051) 또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행사 개요 1부.
2. 포스터 및 일정표 각 1부.

붙임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26년 MoW 국제콜로키움 '번역, 이주하는 텍스트'

○ 기　　간 : 2026. 10. 8.(목) 13:00~18:00

○ 장　　소 : 박물관 1층 강당

○ 관 람 료 : 무료

○ 문　　의 : 연구교육부(032-290-2051)

○ 주요내용

시간	내용	발표자
13:00~13:40	등록	
13:40~13:50	개회사	김명인 |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1부. 세계문학으로서의 황석영 문학- 몰락해가는 세계를 향한 노작가의 발신의 기록		
13:50~15:30	· 작가의 탄생과 문학의 첫걸음 · 시대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글 · 경계를 넘어 세계의 독자에게로 · 한국문학의 현재와 미래	황석영 | 작가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문학평론가
15:30~15:50	청중과의 대화	
15:50~16:00	휴식	
2부. 두 언어 사이의 번역가, 재창작의 과업		
16:00~17:40	· 세계로 건너가는 한국문학 · 번역가가 바라본 K-문학의 오늘 · 문장을 옮기며 마주한 선택의 순간들	데보라 스미스 | 번역가 안톤 허 | 작가·번역가 모더레이터: 최미경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 통번역대학원 교수
17:40~18:00	청중과의 대화	
18:00	폐회	

붙임 2 **포스터 및 일정표**



[사진1] 포스터



[사진2] 일정표